

1 개요

삼승할망본풀이는 산육신(産育神)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동이요왕 아기씨가 먼저 산신이 되었으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새롭게 부임한 멧진국 따님과 꽃가꾸기 경쟁을 한 결과 동이요왕 아기씨는 저승할망이 되고 멧진국 따님은 삼승할망이 된다.

2 내용

동이요왕 아기씨는 동이요왕과 서이요왕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기씨는 불효한 죄로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다. 이때 아기씨는 어머니로부터 아기 잉태시키는 법을 배웠으나 해산하는 법은 미처 배우지 못하고 쫓겨났다.

상자는 물 위에 3년, 물 아래 3년 떠다니다가 처녀물가에 닿았다. 아기씨는 상자를 열어본 임박사에게 자신을 삼승할망이라고 하였다. 임박사의 청에 따라 그 부인에게 잉태를 시켜주었으나 해산하는 법을 몰라 어미와 아기가 죽게 되자 처녀물가로 도망가서 울었다. 임박사가 옥황상제에게 해결해달라고 비니 옥황상제가 석가여래와 석가무니의 딸인 멧진국 따님에게 잉태와 해산의 방법을 가르치고 삼승할망의 일을 맡겼다.

멧진국 따님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동이요왕 아기씨를 만나 서로 삼승할망이라고 다투었다. 둘은 옥황상제에게 가서 결판을 내리기로 하고 옥황으로 갔다.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꽃가꾸기 내기를 한 결과 멧진국 따님이 승리하였다. 동이요왕 아기씨는 화를 내면서 멧진국 따님의 꽃을 꺾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못살게 굴어 얻어먹겠다고 하고 저승할망으로 갔다. 멧진국 따님은 삼승할망이 되어 번성꽃을 가지고 잉태를 주고 산달이 차면 해산을 시키는 일을 하였다.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삼승할망본풀이지만 구삼승할망인 동이요왕 아기씨의

내력과 삼승할망인 멩진국 따님의 내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우에 따라 구삼승할망본풀이 혹은 동이요왕따님아기본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삼승할망은 산신(産神)이다. 산신의 내력을 이처럼 갖추어 전승하는 사례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다. 신구 산신의 대결양상을 흥미롭게 꾸미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④ 핵심어

동이요왕 아기씨, 멩진국 따님, 동이요왕, 서이요왕, 번성꽃, 잉태, 해산, 옥황상제, 꽃가꾸기, 무쇠상자, 임박사, 저승할망, 삼승할망, 산육신

⑤ 원전 서지사항

삼승할망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